

2021 경남 고성공룡세계엑스포 당항포 관광지 부분 개장



1 드론으로 촬영한 행사장
2 공룡 발자국 화석관
3 공룡 동산 전경



경남 고성군은 1982년 하이먼 상족암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이다. 이후 하이먼 덕명리 일대가 1999년 천연기념물 제411호로 지정되면서 공룡 발자국 화석 단지로 널리 알려졌다.

경남 고성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공룡 발자국 화석을 문화 콘텐츠로 활용해 당항포관광지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네 번의 경남 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열었다.

올해 열릴 예정이던 공룡엑스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됐다. 행사는 2021년 9월 17일부터 1월 7일(52일간)까지 열린다.

조직위는 공룡엑스포가 누적 방문객 수 655만명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서, 교육과 놀이가 결합한 축제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새로운 공룡콘텐츠 개발을 위해 시중에서 접하기 힘든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대거 활용했다. 공룡엑스포 대표 전시관인 주제관에는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을 이용해 공룡에 대해 다양하게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XR 공룡라이브파크를 새롭게 조성했다. 또 공룡전시관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동작 모형 공룡을 추가로 배치해 백악기 시대 공룡 테마를 생생하게 재현했다.

공룡을 주제로 한 영상관도 전면 재구성된다. 4D 영상관은 관객이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상호소통) 요소를 추가하

고, 5D 영상관은 화질과 음향을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했다. 또 대형 와이드 파노라마 영상과 7채널의 서라운드 음향 시설을 갖춘 사파리 영상관도 새롭게 조성해 관람객이 다양한 영상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공룡엑스포는 내년으로 연기됐으나 엑스포 주 행사장인 당항포 관광지는 7월 7일부터 야외 전시물을 부분 개장 중이다. 특히 백악기 공룡 동산을 테마로 조성한 야외 전시물 '공룡 동산'은 조직위가 내년 행사를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콘텐츠다. 이전보다 2배 이상 넓어진 면적에 다양한 공룡이 추가로 배치돼 백악기 시대 공룡 동산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공룡나라식물원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표한 공기정화 식물 50여종과 공중에서 미세먼지를 잡는 20여종의 공중식물도 심어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입장료는 부분 개장으로 50% 할인(어른 3천500원, 청소년 2천500원, 어린이 2천원)된다. ▼